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개

이 시 우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교수



대학 수학능력 시험 합격선을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숫자 자체의 공개 여부를 넘어 우리의 교육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필자는 1986년도에 본교에 부임하여 포항공대 1회 입학생을 뽑기 위한 1987년도 입시를 치르게 되었다. 그 당시에도 학생들이 지금 수학능력 시험에 해당하는 학력고사 성적을 먼저 취득하고 대학을 지원하는 상황이었다. 각 대학, 각 학과별로 지원 가능한 학력고사 성적표가 신문에 발표되고, 이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의 각 학과가 서열화되며 수험생들이 이 자료에 맞추어 대학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에서 갓 부임한 필자에게는 충격적이었다. 단수 지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입시

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1년이라는 세월을 재수를 하며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표는 불안감에 싸인 수험생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고 획일화시키게 된다. 자기의 성적이 이 배치표 기준보다 낮으면 떨어질 위험이 있고 또 자기 성적보다 낮은 곳을 선택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성을 고려한 학과 선택, 암기 및 점수 위주에서 벗어나 인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교육,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등의 구호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대학에서는 이러한 배치표에 나타난 서열은 아무리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요지부동이니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학은 망하지 않

는다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교수도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학입시에 복수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학생들이 재수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점수에 의해 대학을 서열화하는 경향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대학 지원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갈구하게 되고, 이에 편승하여 여러 사설 학원들은 대학별·학과별로 지원 가능 수능 점수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언론사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인용 보도하고 있으나, 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이 학원에 로비를 한다는 소문도 있다. 입시철이 되면 학원의 담당자가 입시 전문가로 이곳 저곳 언론에 등장하기도 하며, 사설 학원에서 실시하는 수능 모의고사가 전국의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어쩌다가 우리의 대학이 단순한 수능 점수라는 숫자에 의해 자리매김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이다지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는지 우선 대학인 모두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대학을 획일적인 잣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없는 여건을 우리 대학들이 갖추고 있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대학이 이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볼 때, 사회가 대학을 획일적인 잣대로만 바라본다면 대학이 성장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는다. 일례로 언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채찍질하며, 일반인이 좀 더 전문적인 안목으로 대학을 바라볼 때 대학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모 언론 기관에서 시도하는 대학 평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좀 더 많은 매체에 의해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거 50년간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고 대학도 이러한 사회적인 변혁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획일적인 구도에 의해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발전해 왔으나, 이제는 다양성을 추구하며 질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 같다. 자식은 꼭 대학에 보내야 하고, 교육을 시키려면 꼭 서울로 보내야 하며,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려면 일류대학을 나와야 하는 획일성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회에서는 간판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다. 각 대학들이 그만그만하게 교육을 시키고 기왕에 대학교육에 기대할 바가 크지 않은 바에야 입학 성적 순으로 나타난 간판을 보고 뽑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 결과 수능점수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게 됐다고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 스스로도 수능 점수를 자기들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으로 인식하게 되고, 대학에서의 배움 자체보다도 입시 준비 과정에서 얻은 우수한 수능 점수가 평생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착각하는 예도 종종 있다. 이에겐 각 대학이 수능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보장하고 심지어는 졸업 후 교수직까지 언급하는 사례도 일조를 했다고 볼 때 대학 자체가 반성해야 할 점도 많다고 본다.

또한 일반 사회에서는 수능 점수 우수자, 대학 수석 입학자들을 영웅시하며 언론에 대서 특필할 뿐만 아니라 각 사설 교육 기관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을 상품화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니 이 모두

가 왜곡된 우리의 교육 현실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내건 목표 중에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있다. 언론, 시민단체, 기업, 기타 사회의 각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바람직한 교육관을 갖도록 선도해야 하며, 특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역시 교육 개혁의 한 항목으로 언급되고 있다. 너도나도 연구 중심 대학, 대학원 중심 대학일 필요는 없으며, 대학이 나름대로 특성화되고 다양화되면 대학을 평가하는 잣대도 다양해지고 수능이라는 숫자만으로 서열화되는 경향도 없어지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수능성적 공개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학간의 경쟁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획일화에서 벗어나 다양화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경제 체제에서 독과점의 폐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품 가격의 상승, 질의 하락, 기업 체질의 경직화,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지며 기업 및 소비자,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 전체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이 독과점적인 경쟁 체제 아래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현재의 대학 서열화, 수능 점수에 의한 자리매김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독과점적인 경쟁 체제, 이에 따른 일선 고교의 획일적인 진학지도도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대학의 지원을 강요하고 특정 대학의 입학생 수로 명문고라고 평가하는 현실도 우리 교육 환경의 획일화

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수능 성적의 공개 여부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학이 교육을 제공하는 하나의 공급자라고 본다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교육을 받는 수요자라 볼 수 있다. 자유 경쟁 사회에서는 공급자가 우수한 고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고객은 우수한 공급자를 선택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하고 서로 이익을 취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공급자는 그 질에 대해 평가를 받고 그 서열이 수요자에게 알려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의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대학간의 서열이 어떤 노력을 통한 공정한 경쟁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틀에 의해 고착화되어 있다고 인식되고 있고, 또한 실수요자들이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학부모들은 담임교사가 학생의 적성 및 원하는 바를 고려하여 어느 곳을 추천하면 학생의 수능 성적에 비해 손해보는 것 같다면 배치표에 따르거나 주위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개방과 자율을 표방하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통해 비판 받을 것은 비판 받고 또한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모두 알려짐으로써 사회 전체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 가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료의 공개를 통해 상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각 부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발전에 수능 점수의 공개가 바람직한지 아

닌지는 양쪽의 견해가 다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진 사회에서도 국익을 위해서는 감출 것은 감추어야 된다는 논리가 사안에 따라서 제기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개혁이 일부분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학생들의 선발 방식을 점차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단순한 숫자에 의한 선발이 아닌 대학 나름대로의 주관과 철학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하면 확실적인 교육환경을 탈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 수능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배치표는 항상 그 자리를 메우며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필자는 자료의 공개에 찬성하고 싶다. 그리고 단지 단순한 합격선보다는 입학자의 평균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료의 정확성이 의심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시우/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교무부처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CVD 핸드북』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Effect of N₂/SiH₄ Ratio on the Properties of Low Temperature Silicon Oxide Films from RPCVD", "Remote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of Silicon Films at Low Temperatures from Si₂H₆-SiF₄-H₂" 외 다수를 발표했다.